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3-5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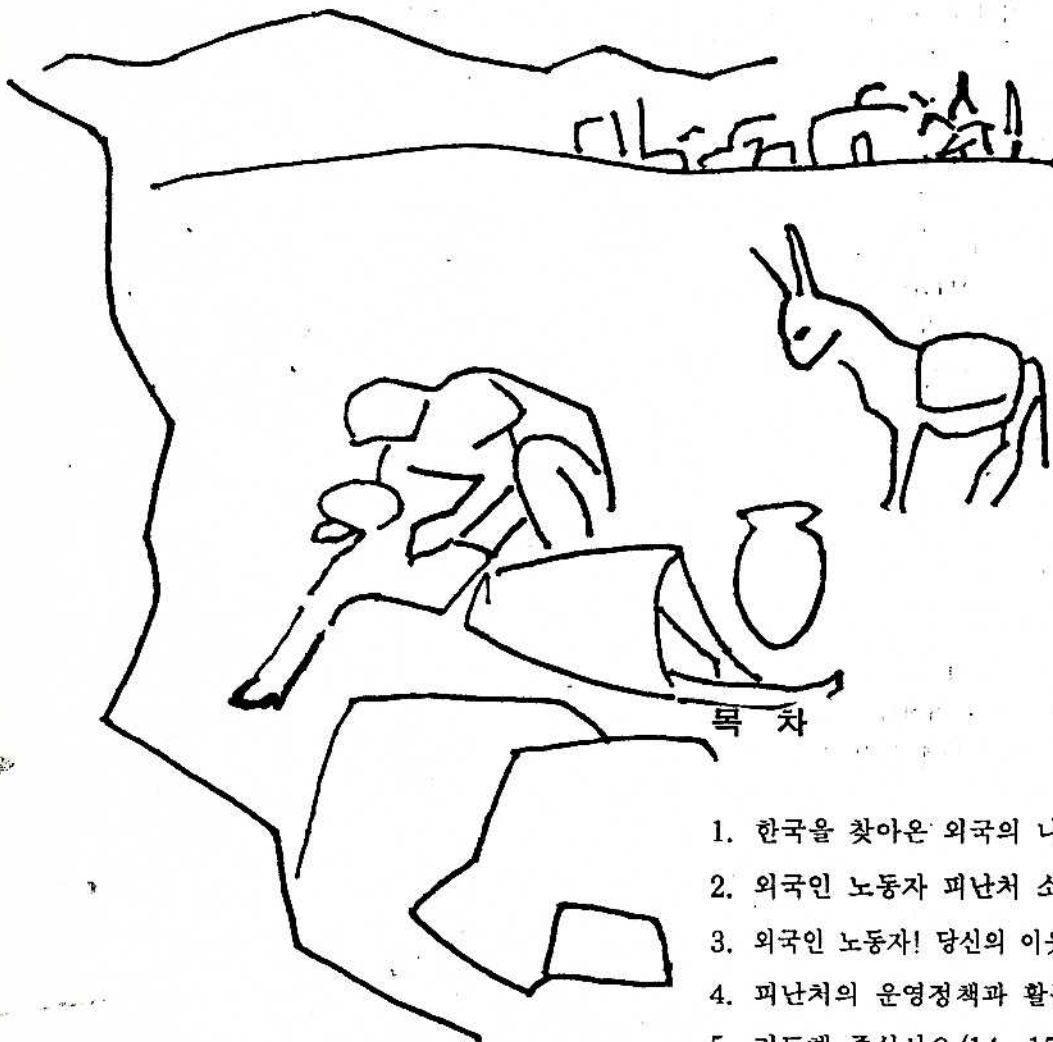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에베소서 2:14)

바닥교회 도시공동체 (꽃들에게 희망을)
외국인 노동자피난처(상담소)

발행일 : 1993년 12월30일(제1호)
전 화 : 676-0439, 685-081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1가 64번지 3층

외국인노동자 당신의 이웃입니다

22



1. 한국을 찾아온 외국의 나그네들/2~3
2.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개/4~7
3. 외국인 노동자! 당신의 이웃입니다./8~11
4. 피난처의 운영정책과 활동/12~13
5. 기도해 주십시오/14~15
6. 고백글/16

근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꾼을 당일애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반궁함으로 마음에 품값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신명기 24:15)

한국을 찾아온 외국의 나그네들...

KDAB 이득수 목사

20여년전 많은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땅을 등지고 독일, 미국, 호주등으로 돈을 벌기위해 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들은 언어도 안 통하는 낯설은 이국 땅에서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 경험을 했었던 우리에게 이제 정반대되는 현상이 지난2-3년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몰라도 한국인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3D(Dirty더럽고, Difficult힘들고, Dangerous위험한) 산업에는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팽배해지면서 인력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나마 채용하게 되었고 1993년초에 그 수는 무려 1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피해자였던 한국인을 이제 서서히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하였다. 역사적으로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만 서있던 한국인은 그동안 가해자들에 대한 울분을 표현해왔으나 이제 군림하고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된 한국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전에 우리가 피해자로서 울부졌던 그 항변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3D산업에 뛰어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은 질병과 사고와 학대에 시달려 그동안 수백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심한 고통속에 헤메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출애굽기 22장 21절-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이였음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구약의 이스라엘백성은 그들이 애굽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많은 학대를 받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낸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에게는 이방나그네를 해롭게 해서는 않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하셨다. 이러한 여호와의 경고는 단순히 인류애적인 차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속역사에 근거한 것이다. 여호와는 피해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속사역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죄악은 연대적인 책임을 물으신다. 특히 그 사회속에 속해있었던 신자들이 무관심한 상태로 있었을 때에, 다시말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누가복음11장에서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강도만난 자를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무라고 강도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셨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강도만난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신약시대때에 이스라엘땅에서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은 대상은 주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중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포함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식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종교적으로도 많이 석여 있었을 뿐만아니라 자기민족에 대한 선민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다.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이방인들이(행2:10-40)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이 땅에 왜 외국인을 보내시고 계시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해외선교에 열심인 교회까지도 별로 동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타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일하다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타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일하다가 손이 잘리는 등의 산재(심지어 죽기까지 함)를 당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국인의 외국인근로사역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소식이 이미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에 알려져 필리핀에서 마닐라항공에 들어가려는 10명의 한국인들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12시간동안 감금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루다가 돌려보내었고, 방글라데시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뺑깁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대규모로 항의시위를 벌였고 네팔을 여행한 한 한국인 교수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네팔현지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등 이미 선교지에서 한국선교사역에 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시말해 국내에 들어와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돌봄이 없는 한 그동안 선교지에서 애써왔던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이제 선교사역은 단순히 국외의 문제만이 아니다. 선교지의 전후방이 없어진 것이다. 국내에서 한국교회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곧 선교사역의 성공여부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오는 12월말까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출국시킨다고 하지만 이 경우 공장문을 닫을 기업이 많을 것이어서 중소기업인들의 원성을 살 것이므로 쉽게 출국은 못시킬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정부는 다른 3세계 국가에서 1년동안의 단기취업연수제(월 5만원정도의 급여제공을 체결한 후)로 들어오게 하여 한 기업체내에서만 머물게 하여 이들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미 들어와 있는 방글라데시인, 네팔인, 파키스탄인, 스리랑카인은 물론 이제는 베트남인, 이디오피아인, 나이지리아인, 심지어 이란인, 모로코인까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대교회때에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몰려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 한국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11월24일 오후 법무부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는 "반인권적인 외국인노동자 벌금법 철폐"와 지난 11월10일 법무부가 부과한 과도한 벌금에 못이겨 영등포구청 로터리 근처 고가도로에서 차도로 뛰어내려 숨진 "중국교포 고 임호씨(38.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를 위한 추모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676-0439), 경실련기청협, 구로회년교회등 한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가슴아파하는 14개 기독교인 단체와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터에서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집회의 참여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국내산업현장의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업종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묵인하고 양산해 왔으면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이 감금과 폭행 그리고 장시간 노동등을 겪으며 일하다 산재 및 임금체불을 당해도, 기본치료나 임금지불을 거부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한 외국인들을 추방하며 벌금까지 부과함으로써 기업주의 반인권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돕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아울러 현재 한국사회는 일제치하에서, 민족을 신사참배로, 부녀들을 정신대로 내몰며 이것을 찬양해 마지 않았던 시인, 학자, 종교인들과 간신배 무리들이 아직까지도 역사의 주인인양 버젓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마당에 일제침탈에 쫓겨 이방땅에서 난민으로 고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중국교포조차 외국인 노동자에 끼워 넣고 이런 만행을 자행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욕심병의 결과이며 민족사상의 붕괴라고 경고하였다. 북미자유무역지대(나프타)의 설정과 아펙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세계가 급속히 개방화, 이웃화되어가고 있는 오늘, 경제성장의 논리에 의해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까지 박탈하며 저임금 노동력만을 이용하려는 짧은 생각은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측면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와 한국시민사회의 도덕적 각성과 보다 높은 야량이 아쉽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개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것이라”
(신명기1:16)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상담소) 김재오전도사

지난해 11월에 이 사역을 시작한 후 만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경 외국의 외국인노동자 역사와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의 간략한 실태와 사업방향을 밝힌 소식지를 한차례 보내드렸습니다. 그후 아직까지 피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에 여기에 간략한 소개를 드립니다. 올 9월 서강대학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출했던 피난처 자료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하고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명칭

‘외국인노동자피난처(신도림상담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1가 64번지 3층.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는 1990.6월에 출발하여 시작된 바닷교회 도시공동체 [“꽃들에게 희망을”] 내에 소속되어 시작된 한 분과사업의 명칭이다.

2. 개소동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이 범람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훼손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세대동안 서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아래 잘못된 서구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인도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을 숭배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결과 였다. 우리는 이런 과거 기독교역사의 부끄러움을 회개한다. 아울러 이런 과오를 씻어내고 자기이해에 사로잡혀 있는 복음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존재가 이념,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날을 진심으로 갈망한다.

지난세월 우리민족은 타민족을 박해하기 보다는 압박을 당하는 처지에 있어왔다. 이는 어느민족 보다도 타민족의 고통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섭리였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여 풍부한 물질생활이 도래하면서 부터 우리들은 지난세월 우리들 스스로가 지탄해 왔던 강대국들의 죄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민족적 상황을 우려하면서, 인구 1천만의 교세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에 이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이시간 한국에서 일어나는 가난한 3세계 노동자의 어떠한 상황도 한국사회, 한국교회의 양심의 반영이라고 믿는다. 이 고백위에서 우리는 지금 이땅에서 우리 동족의 손으로 자행되는 가난한 3세계 형제들에 대한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 사죄를 구하며,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땅에 와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조건없는 피난처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연혁

1년동안의 활동을 중요사건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1990. 6. 19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빈민촌에서 노동자 자녀를 위한 “사랑의 고리공부방”으로 시작.
- 1992. 7-9월 공동체 멤버 3인의 3세계 배낭여행 체험
- 10. 15 공부방 운영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활동으로의 사업변경 결정
- 11. 15 공부방 사업 마감
- 92. 11-93. 3 외국인 노동자 자료, 실태조사 및 자원봉사 현장활동과 기관탐방
- 1993. 4. 1 인종차별 문제예방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1차 홍보전단 발행
- 4. 1-4. 15 사업방향 결정
- 4. 16 피난처 임대계약. 본격활동 시작
- 4. 11-6. 15 4차에 걸친 펄리핀 노동자 임금제불 재판과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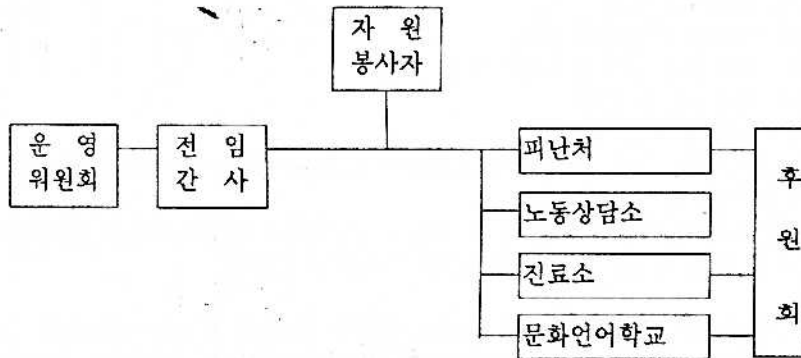
- 4.16-6.15 피난처 내부공사 진행(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 6.16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체불 1차 항의 집회(영등포 지역)
- 6.30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체불 2차 항의 집회
- 7.2-7.13 네팔 노동자 (수니레)씨 사망사건 처리
- 8.2-8.19 네팔 노동자 송금사건(미화 23만불)처리
- 8.5 네팔 노동자 (안 바하두르 라나 바트)씨의 누명쓴 재판사건 접수
- 네팔 노동자(수르야)씨의 산재보상금 횡령사건 접수
- 8.16-9.20 네팔 노동자 (수베디)씨 사망사건 처리
- 8.26-10.5 방글라데시 노동자 (마니크)씨 사망사건 처리
- 8.초 - 말 서울시경 보안과에서 내사
- 9.3 네팔 노동자 임금체불 항의 집회(경기도 화성 지역)
- 9.5 네팔인 (마다바 쿠오르)씨 사망사건 조사의뢰 접수
- 9.11 파키스탄 노동자 임금체불 항의 사장집앞 집회(미아동 지역)
- 9.14 방글라데시인 (나즈물)씨의 사망사건 접수 처리중
- 9.15 방글라데시인 (샤원)씨의 산재보상 미비된채 출국시키려는 회사의 기도를 중지시키고 공항에서 다시 데려옴
- 9.26 (마니크)씨 사망사건 종결
- 10.20 네팔인 (바드리)씨 사망사건 접수
- 10.30 인종차별 문제예방을 위한 2차 홍보전단 발행
- 11. 5 (바드리)씨 사망사건을 종결
- 11. 6 외국인 산재노동자 모임 결성
- 11.24 기독교 14개 단체와 연합 (반신앙적인 외국인 노동자 벌금법 철폐와 중국교포고 임호씨를 위한 추모집회) 주최
- 12. 4 현재 외국인 노동자 사망에 대한 실태 조사중 (시사저널 사회부기자와 함께)외국인 산재노동자를 위한 행정, 민사소송과 연말 기자회견 준비중

올 한해동안 피난처에 접수되거나 처리된 외국인 사망자 사건은 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계할 수 없는 것들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100여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사망사건들 중에는 타살로 보이는 것을 산재사고 형태로 조작한 의문사들로 추정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느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든 보통 한달정도는 시신이 방치되는 것이 일상적인 실태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던 경우는 저희가 아는 한 한건도 없었습니다. 사망사건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물어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여론화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실태는 2주후에 시사저널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의집회)라는 보고가 몇건 있었는데 소개되지 않은 것도 몇건 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의 활동이념란에 소개된 대로 피난처는 활동원칙에서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초기에 외국인이 구타나 폭행을 당하거나, 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강간미수, 임금체불, 감금노동, 산재를 당해서 상담을 의뢰했을 경우 우리들은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기업주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약속을 10번, 심지어는 30번씩을 우롱하며 속여도 참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해결을 본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정도를 진행하자 피난처에 하나의 위기가 왔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저희들이 믿는 신앙양심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희들은 어떤 오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의없는 사랑, 이 힘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강요될때는 여기에 '증오없는 사랑, 의 형태로 맞서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것을 [창조적인 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궁극에서는 욕심에 쫓겨서 옳은 것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업가들이나 약자인 노동자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 저희들은 초기에 인내를 가지고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주들이 5번정도 약속을 어길때까지는 호소하고 기다려 주는 과정을 둔 후, 해결이 불가능 할 때는 성경구절을 쓴 피켓을 만들어서 항의집회를 하기로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피난처의 상담 원칙을 변경시킨 후로 저희들은 이전에 기업주와, 경찰들이 노골적으로 저희앞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사과한마디 하지않고 교만한 행세를 하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두 사례에 선택적으로 가능할 뿐, 한달에 1000명 이상이 몰려드는 방문객

을 이런 형태로 감당 하기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은 10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가 개인적인 자선의 문제로 처리되기는 불가능 하며,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교회와 사회가 공동체의 윤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공의, 라는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피난처 상담의 방향을 공동체 윤리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헌법6조와 근로기준법5조, 14조, 국제노동기구 권고안143조, 유엔헌법, 국제인권규약 등에 나타난 대로 보호하도록 법원과 유엔에 제소하는 것과, 교회가 건강한 사회행동을 통해서 양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고등법원 서울동부지원에서 위의 법조문을 들어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소송에 승소를 판결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취업자 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권리가 모두 박탈된 것으로 간주하던 국민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 조차도 노동한 댓가에 대한 권리가, 인간이 만든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천부인권의 권리'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에게는 희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우리가 패소할 줄 알지만 대법원, 헌법소원 까지 이 문제를 항소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저희들에게 공언을 해서, 우리정부의 반신양적인 행위를 저희들은 가슴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한 여러가지 위험성 속에서 저희들은 한해를 줄타기를 하여왔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밀려드는 비극적인 상담들에 물히고, 힘에 의해서 진실이 무자비하게 꺾박 받는 것을 일년내내 느낄때, 저희들이 악으로 부터 받게되는 폭력에 대한 무서운 신앙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좋은 충고를 기다립니다.

4. 조직



조직표에 나온대로 운영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피난처와 상담소의 기능만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구로의원의 매일진료, 구로회년선교회와 갈릴리 교회의 주일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술해야 할 환자들의 경우 의료선교협회나 기독교인 개인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학교 역시 회년선교회와 통합하여 개설하였는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리적인 여건과 시간여건 때문에 피난처에서 개설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새해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조직은 자원봉사자가 적어서 조직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언어문제에 대한 장애와 낮은 음 때문에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적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후원회는 피난처 일이 너무 바빠서 결성계획 조차 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외에 따로 모금이나 요구를 외부에 하지 않기로 한 공동체의 원칙' 때문에 후원회 결성이 이 원칙에 타당한 것인지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5. 활동이념(원칙)

1번은 기본이념, 2-5번은 문제접근방향, 6-7번은 문제해결 방법론, 8-9번은 외부연대, 10번은 운영방침을 나타낸 것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모든 인간은 그의 피부색, 인종, 국가, 빈부격차를 떠나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하며, 고귀한 존재임을 고백한다.

2. 우리는 한국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본원인이 외국인 개인한사람의 불법체류노동에서 발생한다는 개별적인 관점을 거부하며, 세계경제의 남북격차에서 오는 불가피한 국제노동력 이동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수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노동시장에서

자본(마몬신)의 논리에 의해 3세계 이민노동자의 인간적 권리가 상품의 가치로 전락했다고 규정하며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일임으로 이 악에 대항하여 싸울것을 선언한다.

3. 아울러 우리는 한국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사회사업이라는 개인문제 해결차원보다는 노동문제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4. 우리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열쇠임을 인정한다.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라 규정할때, 이 두세력이 자생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을 중시한다.

5.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노동문제라는 이해를 넘어 인종적, 민족적 이해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인종, 민족차별 감정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사전에 한국사회에 경고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중요시 한다.

6. 우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항상 화해(기업주와 노동자가)의 사랑을 제1의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의없는 사랑이 강요될때는 이를 거부한다. 아울러 이것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창조적 갈등과 긴장을 기꺼이 감수한다.

7. 우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증오를 부추키는 힘을 거부하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힘(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8. 우리는 문제해결 과정의 정직한 접근과 자유로운 신앙양심의 실천이 용이하다는 전제위에서 어느 단체나 주의에도 소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업목적에 맞는 선을 위하여 타 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환영한다.

9. 우리는 양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자의 신앙에 따라서 타 종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가 이곳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이곳 피난처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종교와 국가를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10. "의사와 성직자의 문이 24시간 열려 있는 것과 같이 피난처의 문도 24시간 열려있어야 한다"

6. 운영실태

신도림 전철역에서 도보로 3-5분 거리에 위치한 3층건물의 13평정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13평의 실내를 개조하여 4평가량은 칸막이를 하여 상담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난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난처 내부에는 무료숙식과 간단한 샤워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있다. 그러나 야간의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낮시간에는 상담소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외국인노동자단체들의 회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을 위해서는 현재 1명의 유급상담원과 4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소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는 턱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래 제시한 상담소 이용인원에 대한 실태와 숙식시설 이용에 대한 통계 이외에 설새없이 걸려오는 전화상담과, 문제들의 복잡성과 어려움 까지 감안한다면 적게 잡아도 유급상담원 3-4명에 10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1. 상담소 이용실태

국적	이용자수
네 팔	731
방글라데시	488
한국인	92
필리핀	62
파키스탄	48
이란	33
나이지리아	1
이디오피아	1
총8개국	총인원 1456

*93년 7월, 8월(2개월동안) 이용자 총인원과 국적별 통계

*이용자의 문제 유형별 순위

- 1) 임금체불 2)숙식 3)의료 4)출입국문제 5)구직 6)일반상담 7)산재 8)폭행 및 구타 9)송금 10)사망 및 행불자 11)기타.

2. 피난처 이용실태

*93년 7월, 8월(2개월 동안) 숙식시설 이용 인원

국적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란	한국인	이디오피아	총
이용자수	91	11	49	34	32	30	1	249

숙식자의 경우-피난처에서는 93.12월 현재 매일 5-10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출국을 원했지만 회사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주지 않아서 도망나온 경우, 병이들거나 해서 직장을 잃고 거처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우, 산재나 임금체불문제 해결과정에서 회사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해서 쫓겨난 경우, 수술후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있을 수 없어 수술만 하고 태워진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식사의 경우 일손이 없어서 정확히 얼마의 인원이 식사를 하는지 통계를 낼 수 없으나, 매일 숙식 인원내 방문하는 사람들 까지 합하면 대략 1일 35인분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쌀과 부식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요리해서 드도록 했지만, 현재는 여건상 쌀만 제공하기에도 바쁜 상황이라서 부식은 외국인 본인들이 가게에서 사다가 먹는 실정입니다.

*회의 장소로 이용

남한 네팔노동자 권설텡 협회-매주 1,2회(1회 이용인원 약 20명)

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협회-매월 1,2회(1회 이용인원 약 60명)

각 협회의 모임은 정기모임과 비정기 모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비정기 모임은 자국민의 사망이나 큰 산재를 당한 경우에 수시로 열린다.

3. 운영전망

8월 중순 이후 부터 이용자 수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주일에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내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배경에는 상담과 함께 숙식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과 문을 24시간 열어놓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피난처 이용을 자율에 맡겨놓은 정책때문에 네팔인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자생조직 단체들이 회의등 각종 친목 모임과 만남의 장소, 편지 받아보는 곳으로 이용 하게된 것도 다른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상담정책의 변화로 문제해결 진수가 증가하는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수의 증가와 자율이용 때문에,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난처에서 국제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전화비가 과도하게 나와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더욱 압박하는 것과, 건물주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오가는 것이 싫다며 나가라고 압박하는 것이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피난처 내부시설이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가장 값싼 장판하나 깔아놓고 겨울을 지내야 하고, 전철로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컷전을 때리는 소음때문에 환자들이 누워있을 만한 곳이 못되는데도 환자들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안에 있는 또 하나의 방글라데시 빈민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은 10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교회나 시민들의 양심적인 압력에 의해 정부의 노예부리는 듯한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피난처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만한 재정적인 풍족함을 갖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100명의 상근상담자과 10억원의 돈을 가진다 해도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와 교회,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향은 구제를 병행하면서,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공의적 접근'이 운영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당신의 이웃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뭐, 공장안에서 또 한사람이 죽었다고...

추석연휴가 바로 끝난 오늘 아침 피난처에 출근하자마자 걸려온 전화는,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3일전 공장안에서 한국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오! 주여, 하고 내리누르는 가슴은, 이젠 절망이라고 표현하기조차도 힘든 것이었다. 올해 4월 중순 이후 부터 10월 4일인 오늘까지 만 5개월 19일 동안에만, 소식을 접하고, 처리한 외국인 사망자 수가 오늘로써 꼭 열하음번째이다. 이 한 사건 사건이 어차피 하늘나라로 가야만 하는 인생인 셈 치면,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한 죽음과 죽음이 담고 있는 사건의 의미들을 알고 나면,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구로공단의 한 프라스틱 공장에서 36시간을 계속해서 일하다가 기계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은 방글라데시인, 계속해서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씩 일을 해오던 어느날 아침, 차라리 돼지마 이라 불려야 할 공장안 한 귀퉁이에 간막이가 된 기숙사에서 나란히 심장마비로 죽었던, 필리핀인 부부나, 사이 좋았던 네팔인 두 친구가 사이 좋게 하늘나라로 간 이야기 등등은...

한 사람의 시신을 치우기가 무섭게 발생하는 사망소식 때문에, 월급 못 받았다고, 공장에서 폭행당했다고, 팔이 잘렸다고 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마냥 아직까지도 뒷 전으로만 밀려 있다.

2-3년전 부터 우리가 사는 터전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불법취업 외국인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이름은 이민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불법취업이라는 단어속에는 이들의 노동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용어를 붙임으로써, 이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같은 외국인 체류 노동자가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실로만 짐작해 보아도 이들의 노동이 한 개인의 불법적인 입국과 취업이라는 차원보다는, 저임금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국내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10일 부터 7월 31일 까지 법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기간중 신고된 내용을 통해 출신국가별 외국인 노동자수를 보면,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파키스탄-기타28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숫자별로는 중국인 22,035명, 필리핀인 18,963명, 방글라데시인 8,960명, 네팔인 5,036명, 기타28개국인 6,142명등 총 61,126명(남자45,004명, 여자16,122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한 사

람까지 합하면 10만 이상이 될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과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부로커를 통해 소개비를 내고 입국을 하는데, 한국에 오기 까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보통 3000불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빚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최소한 1년은 일해야만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들은 대개 공해산업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산업,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서 취업하고 있는데,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정부(우리 공동체)가 이들의 노동을 묵인하면서도 이들의 천부인권적인 권리 조차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주가 이들을 폭행을 하거나 아무런 장시간 노동을 시켜도 정부(우리 공동체)는 이를 묵인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안주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안해주어도, 역시 기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집에 갈때에는 어김없이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이것을 지불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섯달전 한 필리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일을 하기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쉬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일하는 중간 중간에 자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사장을 만나겠다는 상담원의 제의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런곳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몇일전 한 이란인이 피난처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는 36일동안을 단 하루의 휴일을 가진것을 빼고는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하다가, 공장안의 한국인 4명에게 온몸이 구타를 당하여 피멍이 들어왔습니다. 폭행을 당했을때 경찰이 왔는데,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딱! 떠밀면서 겁을 주었기 때문에 가방만 들고 도망을 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경 외국인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놀랍게도 4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5천볼트의 전기를 맞은 후 겨우 생명을 건진 연변교포아저씨가 병원에서 태워하던 날 불법취업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강제출국을 시키려한 기업주, 사장이 같이 여관에 가야만 월급과 여권, 항공권을 주겠다고 하여 호소해온 필리핀 여성, 사장이 강간하려고 끈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오히려 사장에게 그를 다시 인도하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도망나온 또다른 필리핀 여성, 유해사업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강제로 출국시켜버린 기업주, 사장은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지만 1년분의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 경찰에 호소했으

나 모두다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나몰라라 하기때문에 눈물만 흘리는 네팔인, 팔뚝이 잘렸으나 꺾값을 받고 나가며 울던 네팔청년 수레시 등등.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아픈사연들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이 없다하며, 억울하게 한 사람들은 단지 자기땅 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이들을 학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들이 처한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우리 피난처에는 이와같은 사연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요청해온 이방인 이웃들의 수백명분의 파일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이용하여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해결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주와 정부당국을 향한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의 희망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는 유혹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점점 상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방인 이웃들이 당하는 문제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번 7.8월 2개월 동안 이곳 피난처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는 8개국적의 1456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상담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문제들은, 임금체불-숙식-의료-출국문제-구직-산재-폭행 및 구타-일반상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의뢰-송금-기타의 순서로 나타 났습니다.

사례1) 올해 나이 스물 여섯의 나바라즈는 네팔의 산간 오지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을 하던중 91년1월 18일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한 그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가구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일을 20시간씩 해야했고, 일을 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공장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그는 갈려있는 것과 일이 힘들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사출기에 팔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부딪혀 버렸습니다. 수술 후에도 한팔로 계속 일을 해야했고 이 때문에 수술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였고, 의사는 한달 후면 낫다고 계속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접촉한 후 다른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이 사실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을 동안 약값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료 노동자들에게 조금씩 돈을 꾸어서 쓰느라, 한국에 온 이후에만도 100만원이 넘는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의 2차 수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그를 방치 하겠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피난처를 통해서 한 기독교인 의사선생님을 만나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오늘 까지도 팔에 쇠막대기를 고정하고 다니며, 일주일 후에 재수술을 또한번 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 회사에서는 그의 생활비 조차 지불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느 목사님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집에 있는

두명의 여동생과, 암에 걸려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돈을 조금씩 꾸어서라도 매달 부치곤 합니다. 그가 어렸을때 스페인으로 이민노동을 갔다와서 병으로 사망했던 그의 아버지의 불행한 과거를 그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2) 45세된 네팔인 안 바하두르 라나 바트씨는 경기도 오산 근방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밀린임금을 달라고 사장에게 요구한 후, 사장 부인이 집으로 그를 초대 하였습니다. 집에간 그에게 사장부인은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던중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밖에는 사장과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후 그는 강간범이 되어, 지금은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재판과정에서 영어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역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강압적인 조사가 행해졌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사례3) 파키스탄인 로만은 올해 4월 21세의 나이로 작업도중 일어난 모타폭발 때문에, 구로고려대학병원에서 치료중에 사망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2명의 파키스탄청년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도왔던 한 한국인 여대생의 길 안내를 받으며, 병원에서 밤늦은 시간에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여대생이 돌아간 후 잠을 자던 이들의 공장방에, 새벽2시경 긴장한 한국인 청년 5명이 술을 먹고 들어와 집단 구타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빨이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두들겨 때면서 했던 말은 한국인 여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경찰에 신고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신고하면, 도움은 커녕 강제출국이나 당하지 않은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례4) 회사에서 폭행당하고 월급 못 받고 나온 대표적 사례들

23세인 네팔인 쿤단은 올해 3월7일밤 10시경 공장안에서 술을 마시던 사장이 함께 일하던 네팔노동자 4명을 모아놓고 이유없이 구타를 하자, 이에 일을 그만하자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인 노동자가 사장에게 일렀고, 이 때문에 사장이 와서 그를 주먹으로 다시 때렸습니다. 그때 귀 주변을 얻어 맞은 것 때문에 이진부터 앓아왔던 병이 재발하여 수술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24세인 부다와 22세인 프라타 푼은 올해 6월 10일 소주를 먹은 공장사장과 한국인 노동자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눈위가 찢어져서 바늘로 꿰매었고, 공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세인 방글라데시인 파리드는 김포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10일 작업을 하던 중, 공장장은 그에게 빨리 빨리 일 하라며,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때 곁에서 함께 일하던 사폰이라는 그의 조카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과 각목으로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 사폰은 다시 한차례 더 맞았고, 파리드는 그날로 일을 그만두고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후, 공장을 떠날때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갔던 파리드는 이번 9월 25일 아침 8:45분경 사장과 공장장에게 다시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처음 사장이 손바닥으로 뺨을 쳤고, 그 다음으로 공장장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목을 두번이나 세게 쥐어서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통나무로 때리려고 한 것을 사장이 말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했던 다섯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은 모두다 한 두차례씩 맞은 경험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례5) 기타 사례들

경기도 광주에서 일하던 필리핀인을 술먹은 한국인 노동자가, 두들겨 팬 후, 라이터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하면서 불로 운동화와 옷을 그을리며 조롱하고 칼로 손등을 절렀습니다. 이에 그가 도망을 가자, 뒤에서 돌을 던져 팔꿈치가 상해온 사건.

집에 가겠다는 20세의 네팔청년 험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다가 손가락 4개가 잘려나가자 보상한푼 없이 보내려고 하는 사장, 그리고 이 청년은 아직도 전기불이 없는 공장방에서 1년이 넘도록 잠을 잔다고 하소연 해온 사례.

손가락 두개가 못 쓰게된 사헌 이라는 청년에게 손가락 하나에 10만원씩 지불하고 몰래 출국시키려던 사장을 알고, 김포공항에서 이를 제지할때, 우리더러 배국노라 하던 사장과 이 청년에게 벌금을 내라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 공장에 불이나서 타 죽었으나 불법취업자라고 돈 한푼 보상받지 못했던, 연변교포와 한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례 등, 더 적기에는 진짜 매국노 같은 느낌이 들것 같기에 적을 수 없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사건들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며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 이 일에 하나가 되어 공모라도 한듯이 이들의 이런 생활조건에 대하여 묵인하며, 정부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벌금을 먹이고, 추방하는 수단을 써서 고용주를 공공연히 돕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충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란, 우리 국민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범죄나 일으키는 집단 썸으로 여기며, 불법 체류자 이기에 모든 법적 보호수단을 박탈당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그의 기본권은 그들이 어떤 곳,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고백이 이 백성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우리의 경제에 공헌하는 일을 하면서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와 죄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친교, 나눔, 섬김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 모습은 차

별없이 누구에게나 증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성장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자기 내부의 모습을 보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세계각지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장로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국력의 신장이요, 교회성장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들어온 가난한 3세계의 이웃들과 가난한 나라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들에게 행하는 학대는 우리내부에 깃들여 있는 신앙과 국가정신의 본질을 증거하는 표시로 받아들여 져야 할 것입니다. 2주전 일본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분들과의 한, 일 연대회의가 있어서 서강대에 갔다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인들에게 행하는 비인도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주문이 밀릴때는 24시간 밤샘작업을 시키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잠가버리기도 하고 현지 노동법에 규정된 생리, 연차휴가 조차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특별히 생리휴가를 내줄 때도 진짜 생리를 하고 있는지 몸 검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작업중에 옆사람과 잠담을 했다는 이유로 반창고로 입을 틀어막고, 조는 사람들의 눈썹을 면도기로 밀어버린 현장감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 60여명을 공장마당에서 벌을 세웠다가 20여명이 일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긴 사례도 있었고, 폭행과 성적희롱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보게 하신 것은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이 땅의 신앙의 본모습과 국가정신을 깨닫게 하시려는 양심의 표시를 주신 것 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자기나라로 돌아갔던 한 네팔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돌맹이를 쳐들어 죽이겠다고 목살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서는 한국에서 당한 억울함을 들은 공항경찰이 보복하려고 한국인 10여명을 권총으로 위협하며 감금했다가 그대로 강제출국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를 꿈꾸는 이 나라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 이웃을 잘못 대접한 덕분에 큰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 대한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땅에서 우리손에 의해서 수난당하는 이웃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힘없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상을 순례하는 나그네이니 가족과 고향을 멀리 떠나 나그네된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피난처의 운영정책과 활동

93년도 평가와 94년도 계획

우리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동할 때, 소개란에서 밝힌 활동원칙 외에는 어떤 정치적인 개입(그것이 교회이든, 정부이든)도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피난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이들과 우리 단체나 또다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피난처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찾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시켜야 되는 사회적 긴장을 교회나 정부가 원치 않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이다. 교회와 정부는 빈자와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주는 것 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를 원칙으로 행동할 때, 이것은 교회나 정부 모두에게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되어서 늘 교회나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부터 오해와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오해들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실이 심판하시도록 맡기며, 이를 감수하기로 각오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선택이 고집스런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활동의 입지를 좁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이런 선택 때문에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결정할 때 자유를 얻었다. 이런 선택 때문에 우리 피난처는 가난하지만,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자신적 측면보다는 주님이 창조하신 천부인권의 기본권리라는 측면에서 발언하고 접근하는 특별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경찰과 정부 정보기관의 감시가 심해지고, 보수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기독교 사회단체나 교회와의 연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의 정도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이 93년에 우리가 선택한 운영방향이 가져온 장점과 단점들이다.

이외에 상담을 위한 방문건수와 문제들의 유형 그리고 사건중심으로 올해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을 위한 방문객은 1개월에 대략 900-1000회 정도였고, 방문객의 주요 국적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이란, 기타국 까지 합하여 10개국의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방문객들이 가져온 주요한 문제들은 임금체불, 구타 및 폭행, 기업주의 여권압류, 출국문제, 산재, 사망, 의료, 숙식문제 등 이었다.

주요한 사건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업주에게 호소하고 노동부나 경찰에 기업주를 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나, 모두가 묵살되어서 성경말씀을 들고 10여 건의 사례에 사업장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여섯사람의 외국인노동자의 시신을 처리하였고, 4월에서 6월까지 2달에 걸쳐 6명의 필리핀인 임금체불사건을 소송하여 승소하였다. 11월에 한국정부의 과도한 벌금부과 때문에 자살한 한국인 중국교포 문제로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였고, 이 때문에 한국정부의 출국정책이 새해부터 바뀔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아울러 연말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주간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그동안 한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 확인작업과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산재를 당하고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8명의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특정장소에서 "내외신 기자회견과 양심의 행진"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다. 올해의 활동은 초기에는 주로 기업주에게 신앙적인 양심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 단 한 건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반기와 후반기는 사회가 제도와 법을 가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해 정부기관(노동부, 법무부, 경찰)과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언론을 이용한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내년도 주요 활동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상황은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유엔헌법과, 한국헌법6조, 근로기준법5조와 14조, ILO권고안 143조 조항에

- 근거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법적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둘 것이다.
2.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외 교회와 인권단체가 한국정부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고 연대를 추진하는 일
 3. 국제사면위원회나 유엔 인권위원회에 외국인노동자의 부당사례를 제소
 4.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법집행을 안한 직무유기 죄로 법원에 각계인사와 사회단체 이름으로 제소하는 일 추진
 5. 현재 접수된 산재사례들을 가지고 민사,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일
 6.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담원의 채용과 자원봉사자 확보와 훈련을 활성화 하는 일
 7. 피난처 공간을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일
 8. 문화학교와 언어학교 개설
 9.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10. 외국인노동자 상담사례집 발간
 11.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외국인노동자 실태 재평가
 12. 피난처를 교회나 해외선교단체와 연결하여 외국인노동자 선교를 위한 접착점으로 활용하고, 한국내의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국외선교사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

***** 94년도 예산 *****

* 수입

- 1개교회 월 10만원
- 1가족 현금 월10만원
- 일반후원자 월10만원
- 기타 불규칙 후원자 300만원 93년도 총액 660만원 한달평균 55만원

* 지출내역

- 1) 건물임대료 : 보증금 500만원 40만 X 12 = 500만원 + 480만원
 - 2) 공과금 : 전화세 10만원 X 12 = 120만원,
수도, 전기, 오물세 4만원 X 12 = 48만원
 - 3) 인건비 : (50만원 X 12) X 3 = 1800만원
 - 4) 사무 행정비(집기구입, 컴퓨터 운영, 종이, 자료복사, 기타 사무용품구입비) : 5만 X 12 = 60만원
 - 5) 상담활동비(공장, 병원, 단체 방문비, 교통비, 사망자 처리비용 등) : 40만원 X 12 = 480만원
 - 6) 외국인노동자 식비(쌀, 부식, 연료대) : 30만원 X 12 = 360만원
 - 7) 문화, 언어학교 운영비(교재비, 교사차비) : 5만원 X 12 = 60만원
 - 8) 자료발간 : 소식지 5만원 X 4 = 20만원,
상담사례집 ? 외국인노동자 안내책자 2000권 X 400원 = 80만원
 - 9) 난방비 : 3만원 X 6 = 18만원
 - 10)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비 : 2만원 X 12 = 24만원
 - 11) 각종 소송 지원비 : 7만원 X 8건 = 56만원
 - 12) 국외 인권단체 구제비(동티모르 독립운동 단체) : 7만 X 12 = 84만원
 - 13) 기타잡비 : 2만원 X 12 = 24만원
 - 14) 예비비 : 100만원
- 총액 : 38,140,000. 원

기도해 주십시오

1. 산업재해를 당하고 오갈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하여

@ 네팔인 (험 나라안)씨 - 인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왼손 손가락4개가 절단되었으나 사장이 구타하여 보상금 한푼 못받고 도망나와야 했습니다. 도망나온후 회사는 그의 소지품 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 이디오피아인(원더스테스타)씨 - 성수동에 있는 완구제조 업체에서 작업중 공장장이 등을 때려서 프레스기에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 당하였습니다. 사고후 치료와 생활비 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조금 가지고 있던 돈도 다른 한국사람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 네팔인(다네 쇼르 반자데)씨 - 군포에 있는 두개의 공장에서 왼손 오른손 모두 땀병이 돌리기를 당하여 못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공장에서는 왼손을 절단 당하고 5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사장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번째 공장에서는 오른손을 로울러에 휘말려 못쓰게 되었으나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서 수술할 곳을 찾고 있고, 2개월분의 임금도 못 받았습니다.

@ 방글라데시인(사이플 알름)씨 - 요플레 수저 만드는 프라스틱 공장에서 왼손 손가락 두개가 절단되었고, 절단된후 회사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회사와의 1년간의 긴 협상을 통해서 150만원을 보상으로 받았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억지 서약을 하였습니다.

@ 네팔인 (나바라즈 판타)씨 - 프라스틱 만드는 프레스 기계에 눌러서 오른쪽 어깨 관절부위가 복잡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은 어깨가 80정도 각도로 안쪽으로 굽어서 퍼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완치되지 않아서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치료는 기독교인 의사를 통해서 무료로 받았고, 생활비 조차 없어서 한국에 와서 200만원 정도의 빚까지 졌습니다.

@ 방글라데시인 (수마르)씨 - 김포지역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습니다. 사장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한국인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을 모두 계산해 주고, 남아있던 5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의 밀린 월급 5개월분씩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장은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치료비까지 그의 월급에서 제하여서 1년정도의 월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들 산재노동자들은 현재 공통적으로 생활비도 없고, 먹고 자갈곳이 없어서 친구공장의 기숙사에서 눈치보며 기거하거나, 피난처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상이나 치료조차 마무리 되지 않고 버려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 머물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기업주나 정부로 부터 적절한 보상과 함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상호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의 가족을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저널 93년 12월 3째주호에 공동조사하여 자세히 보도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사망노동자들은 한전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국에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것 조차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인 이들 가족이 살아갈 생계대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운반하는 것 조차도 업주들이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죽음과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처리되도록 기도합니다.

3. 피난처의 이사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왕래를 못 마땅하게 여겨,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장소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30-40평정도의 공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구해지도록 기도해주시요.

4. 피난처의 활동가들을 위하여

현재 피난처에는 3명의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000여명의 외국인들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밝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체나 조직의 힘보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고 세상과 싸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연말에 있을 내외신 기자회견과 양심의 행진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양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산재당한 외국인 형제들과 함께 내외신기자회견과 금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하나님께 바쳐 지도록.

6. 새해에 기획한 문화. 언어학교를 위하여

필요한 교사와 적절한 자원이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한국교회와 정부에, 외국인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바닷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그리스도의 섭리에 따라 이끌어 지도록

9. 기업주와 노동자가 욕심을 버리고 공의와 용서를 세우며 화해를 이룩하도록

****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1. 문화. 언어학교 교사
2. 피난처 청소 및 정리정돈
3. 병원동행
4. 병간호
5. 기독교행동대
6. 공장방문
7. 전화받기. 상담

**** 필요한 물품을 찾습니다 ****

팩스. 가스렌지. 철제캐비닛. 산재자에게 필요한 인공손가락 15개.

고 백 글

섬 들 아!

한 구도자의 말에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은 타락한 신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한 죄인이니라) 고 한 말이 있다. 과연 구도자의 소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인간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을 들라면 신도사이의 (종파심)이라고 하고 싶다. 구교도가 신교도에 대한 것과 제 7일 안식교도가 복음주의 신도에 대하여 하는 수작의 용렬하고 추악함은 가증하여 말할 것도 없는 바거니와, 다같이 복음주의의 신교도이면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이 서로 공수의 전략에 몰두하려 함은 무슨 심사이며 하물며 기성교의 팽박에 머리 들 곳도 얻지 못하여 헤메이는 자들 중에서까지도 (종파심이 음이 돌는다) 함은 아무리 호의로써 본대도 (종교) 그 물건을 침팬고 싶고 인간세상까지도 저주하고야 말게 한다.

이런 때마다 우리의 영은 대륙을 여의어 섬으로 향한다. 문화의 꽃과 교통의 편과 회당의 탑들은 다 (해륙을 다니면서 교도를 모집하여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에게 맡기라. 그리고 감독과 명사의 종적이 미치지 못한 고도에서 순수한 사랑과 진리대로의 진리를 양심의 귀에 속삭이고자 함이 소원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여화도에는 물론 교회도 없고 오직 한글로 성경읽는 한 가장이 있을 뿐이라 한다. 옛날 우리의 재독 이순신이 거북선으로 수심을 재면서 전략을 획책하면 전라, 경상의 다도해에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영원의 경륜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은 얼마나 할까? 적어도 거기에는 종파심의 쟁탈전에 부대끼지 않은 천연스러운 영혼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아름답도다. 동해, 남해,

황해의 섬들이여!

이런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도는 대륙이로되 (섬)자가 붙어 있거니와, 거기서 복음을 위하여 사상의 노도 속에 고군분투하는 우리는 나에게 항상 섬사람으로만 기억된다. 40만 대도시의 종로 중앙에 거처하되 (사람 기근)을 느껴 이야기할 사람을 구하는 이도 섬사람이다. 가난한 것이 섬이요, 병환이 또한 섬이다. 섬을 사모하여 이에 이르니 생각이 저절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세인트 헬레나 섬의 영웅 나폴레옹에게는 그래도 몇 몇 명의 수행인이 있었고 고도의 사람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짐을 통할 새와 꽃이 있었다. 그러나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미의 섬사람이었다. 섬에서 섬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돌아와 이야기하라.